하상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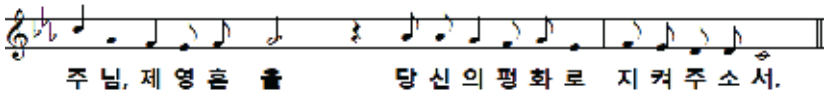
2017년 10월 1일 (가해)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선교의 수호자) 대축일 제1660호

성 정 바오로 공동체 창설 31주년 기념 〈음악의 밤〉

[제1독서] ····· 이사 66,10-14ㄷ

[화답송] ····· 시편 131(130),1.2.3

◎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 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나이다. 제 눈은 높지도 않사옵니다.
감히 거창한 것을 따르지도, 분에 넘치는 것을 찾지도 않나이다. ◎

○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다독이고 달랬나이다.
제 영혼은 마치 젖 뗀 아기, 어미 품에 안긴 아기 같사옵니다. ◎

○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

[제2독서] ····· 1코린 7,25-35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음] ····· 마태 18,1-5

[성가 안내]

- 입당성가: [337] 미사 시작
- 봉헌성가: [210] 나의 생명 드리니
  [209] 사랑하올 예수 성심이여
- 성체성가: [504] 우리와 함께 주여
  [498] 예수여 기리리다
- 파견성가: [271] 로사리오 기도 드릴 때

"음악의 밤" 참가자

공동체 창설 **31** 주년 기념

음악의 밤

공동체 창설 31주년 기념 "음악의 밤" 이 지난 23일(토) 저녁 미사 후 본당에서 열렸다.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신부는 "음악의 밤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한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 며 기쁨과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백 신부는 또 올해의 사목 목표인 '사랑이신 하느님을 닮아가는 해' 를 언급하며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동참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이날 '음악의 밤' 에는 Vox De Caelis 성가대와 라우다떼 성가대, 마니 안젤리 핸드벨, 청소년 Choir & Orchestra, 7080 밴드, 그리고 쉐마 청년 성가대 등 총 6팀이 참가해 아름다운 무대를 선사했다. 청중들은 각 팀이 준비한 2-3개의 곡이 끝날 때마다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답했다. 참가 출연진들과 청중들은 음악회를 마무리하며 한마음이 되어 "선구자" 를 합창했다.

마니 안젤리 핸드벨 연주단

70·80 연주단

쉐마 청년 성가대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동체 창설 31주년 기념 성경·교리 퀴즈대회

본당 공동체 창설 31주년을 기념하는 '성경 교리 퀴즈대회'가 지난 24일(일) 친교실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신자들의 영성과 성경 지식을 향상시켜 소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구역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총 11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하여 각자의 성경 · 교리 지식을 발휘했다. 성령 기도회의 생활성가 및 진행자 서경원(마르티노) 형제와 강지우(소피아) 자매의 재치 있는 진행은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어주며 유쾌한 분위기로 이끌었다. 또한 대회 사이사이에 진행된 경품 추첨과 패자 부활전은 참가자들뿐 아니라 응원단에게도 재미와 흥미를 안겨줬다.

참가자들의 열띤 경쟁 끝에 비엔나 팀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구역부 우승을 차지하였고, 이동명 안셀모 형제가 탁월한 성경 지식을 뽐내며 퀴즈 왕으로 등극했다.

시상 후 경품 추첨을 통해 32" 스마트 TV 등 푸짐한 상품을 참가자와 응원단에게 전달하며 공동체 창설 31주년 행사의 대미를 풍성하게 마무리했다.

꾸리아 월례회의

레지오 마리애 소속 두 꾸리아 월례회의가 9월 24일(일) 오전 하상관에서 있었다. 하느님의 어머니 꾸리아(단장 정우진 미카엘)와 은총의 모후 꾸리아(단장 이순임 헬레나)의 간부 36명이 모여 진행된 이날 회의는 묵주기도, 영적 지도신부님 훈화, 사업 보고 그리고 공지 사항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연말에 계획된 레지오 행사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제4회 친선 바둑 대회

제4회 친선 바둑대회가 지난 23일(토) 오전 10시부터 본당 친교실에서 열렸다.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와 워싱턴 한인 감리교회 간의 대항전에서 본당이 21대 7의 점수로 우승했다.

"생명이신 **말씀** 안에서, 사랑이신 **주님** 품에서…."

정남진 신부 특강, "성경 말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지난 20일(수) 본당에서는 "성경 말씀,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정남진 안드레아 신부(로마 성서대학)는 성경을 보는 올바른 시각과 묵상 방법에 대해 열띤 강의를 해 신자들이 '말씀' 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왔다. 정 신부는 강의가 끝난 후 "말씀에 대한 신자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어 강의 내내 더불어 행복했다" 고 말했다. 다음은 강의와 인터뷰 중 주요 내용이다.

성경의 언어는 고백의 언어 –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 역사를 이해해야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현대 자연 과학과 상충되는 내용들은 물론, 두렵고 잔인한 하느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노예들에 대한 구절을 접하노라면 정말 이것이 하느님의 말씀일까 싶을 정도로 의구심과 거부감이 들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하느님은, '절대 객관의 신' 이 아니라 '그 때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인식한 신' 이라는 것, 또한 성경의 언어는 '객관적 진술' (신문이나 역사책 같은)이 아니라, '고백의 언어' 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느님의 모습이 잔인하게 묘사된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약소국으로 생존을 위해서 주변 민족과 크고 작은 전쟁을 늘 겪으며 살았습니다. 당시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그들이 인식한 신은 자기 민족을 지켜주는 신, 원수를 물리쳐 주는 수호신의 범주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서술된 구절을 보면, 하느님이 적들을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식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승리는 이미 수백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건과 기록 사이에는 수백 년 혹은 천 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백성들은(신앙인들은) 그것을 후에 하느님의 도우심과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신들이 학살했던 적들까지도 하느님의 힘으로 죽인 것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과 신앙의 눈으로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 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지평 안에서 고백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당시의 문화와 사고방식 안에서 단편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환경과 시대 배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무조건적,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탄생한 책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 저자의 의도와 저자가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열쇠로 구약을 읽다

예수님 역시 구약의 말씀과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혼인에 대한 말씀(마태 19장)을 살펴볼까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여 혼인하였는데, 그 여자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신명 24,1)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마태 19,8) 만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지켰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려라' 고 한 모세의 말을 지키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마태 19,6)

당시 구약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인식 수준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자유를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뒤쳐져 있었습니다.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던가요? 하느님은 그들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셔야 했고, 그 높이를 시작으로 그들을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견과 복음 선포로 당신의 계시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느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이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서야 감추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을 열쇠로 구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야 비로소 구약의 하느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만으로 하느님의 모습을 구성한다면, 그 하느님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단편적일 수 있습니다. 그저 정의롭고 무서운 재판관의 모습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혀진 하느님의 모습을 염두에 둔다면, 구약에 쓰여진 그분의 모습을 새롭게 이해하고 재해석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땐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 보세요.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 마음에 품는다면, 그 만남으로 우리의 사랑은 깊어집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 안에 담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동하고, 성령을 만나게 하고, 기도를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은 우리안에서 새로운 씨앗을 싹틔웁니다.

사실, 당시 유다인들은 구약의 말씀에 의문을 가질 것이 전혀 없었겠지요. 그것은 그들의 인식과 문화 안에 완전히 부합하는 말씀이었고, 그러기에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은 하나도 거를 것이 없는 하느님의 말씀 그 자체였으니까요. 우리는 동화책을 읽으며 그 이야기에 과학, 문화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동화책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구약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복음을 열쇠로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느님 백성의 신앙을 발견하고, 끝까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하느님의 성실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주체가 어떻게 만나고 사랑하고 갈등을 겪고 화해하는지, 또한 그것이 누구에 의해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담긴 메시지를 직감적으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말씀으로 나를 채우다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누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성찬의 전례 때만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전례에서도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만납니다. 말씀의 전례는 단순히 신자들에게 성경을 읽어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 방법

▶자기 성찰 ▶예수님 마음 붙잡기

묵상의 쉬운 방법은 자기 성찰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으로 **'나'**를 한번 들여다 보는 겁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진정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그 방법 중 하나는, **'예수님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복음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시고 말씀하셨는지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루카 7,11-17)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고(루카 7,13)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바라보시며 측은함을 느끼셨을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더 면밀히 찾고, 그 마음을 붙잡으세요. 그 마음에 푹 잠기세요. 우리는 모든 복음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혹은 성부의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 우리의 사랑은 깊어집니다. 성령께서 이끌어주십니다.

성 정바오로 성당 신자 여러분께

강의를 듣는 신자분들의 눈빛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저도 덩달아 힘이 나고 기뻤습니다. 제가 이곳에 잠시 머물면서 느낀 것은 이곳 신자분들이 굉장히 능동적이시라는 겁니다. 신부가 무언가를 전하면 스폰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순수함과 적극성을 함께 지니신 것 같아요.

그런 순수함으로 성경도 순수하게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론 어렵고 딱딱해서 읽기 싫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는 편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읽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밭을 갈고 있는 인내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밭,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밭을 우리가 일구어 나가는 겁니다.

씨앗은 작고 투박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때론 감추어져 있고, 어렵죠. 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보세요. 곧 그 안에 생명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 담긴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동하고, 성령을 만나게 하고, 기도를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은 새로운 토양이 되어 다시금 새로운 씨앗을 싹틔웁니다. 우리가 온 삶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그 싹을 틔웁니다.

성 정바오로 신자 여러분! 생명이신 말씀 안에서 숨쉬며, 우리 삶 안에서 주님 생명의 씨앗을 싹 틔우시기 바랍니다.

하상주보©

CCD Sunday School students celebrated Korean Martyrs' Day this past Sunday, September 24th to learn more about the Korean Catholic heritage and to honor all the Korean martyrs.

Kindergarten thru 8th grade students were each assigned to one of 103 Korean martyrs on their first day of Sunday School. After two weeks of researching the faithful life of these martyrs, students filled out questionnaires while visiting various stations in the gym to learn more information about the Korean martyrs.

It was amazing to witness many of our young children actively engage in this activity with a curious mindset. The students genuinely showed interest in learning about the root of our faithful community, and we hope that they will continue to embrace and strengthen their religious faith.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huge appreciation to Fr. Bang for his strong support, Sunday School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especially for the younger students, and Mr. Shawn Boyle who worked behind the scenes to successfully execute this wonderful learning experience for the first time at our parish. Thank You!

- *Yunchong Boyle*

Celebrating St. Paul Chung Church's 31st Anniversary: Music Concert

Fantastic night with graceful music!
The SPC's 31st Anniversary concert was held in the evening of Saturday, September 23rd.
About 25 youth string and choir members' month-long practices and hard work were heard and praised by the church members that night.

"It was really great to have the opportunity to perform for such an accepting and energetic audience", said the Conductor, Cha.
She would also like to thank all choir members and their parents for support and dedication for this special event.

(← more pictures on page 2)

CYO Teachers' Directory (2017-2018)

• Assistant Principal (9th-12th) : ***Mr. Rhee****(Augustine)*

Ninth (9th/Freshman)	***Bona Im****(Bona)* ***Michael Kim****(Michael)*
Tenth (10th/Sophomore)	***Nicholas Edwards****(Nicholas)* ***Elaine Lim****(Elaine)*
Eleventh (11th/Junior)	***John-HyunJoon-Kim****(John)*
Twelfth (12th/Senior)	***Jennifer Hwang****(Christina)* ***Peter-YoonJae-Kim****(Peter)*

Catholic NEWS

Arlington Diocese Youth Ministry Annual Theme (2017-2018)

This year's theme for the Office of Youth, Campus, and Young Adult Ministries in the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is "Walk humbly with your God." We are excited to use this theme because it is the episcopal motto of our new bishop, Bishop Michael F. Burbidge, who was installed as the fourth bishop of the Diocese of Arlington on December 6, 2016.

ANNOUNCEMENT

1. No Sunday School (Columbus Day Weekend)
- October 8th(Sun)

2. Formation in Christian Chastity Training
- **Who :** 1st - 8th grade students
- **When :** October 15th(Sun)

3. First Communion Registration Service
- **When :** 10/22-11/12 (Sundays), 9:30am-1:30pm
- **Where :** Hasang Building Lobby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email to spc15.re.admyc@gmail.com or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1 한가위 – 조상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
- 미사 일시 : 10월 4일(수) 오후 8시
- 위령미사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10월 1일(일) 오전 11:30 (B-3,4)

3 청소년 사도 임원회의
- 일시 : 10월 1일(일) 오후 1시 (A-3,4)

4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10월 1일(일) 오후 1시 (B-1)

5 주일학교 1학기 화재 대피 훈련
- 일시: 10월 1일(일) 오전 11:10 – 11:30
- 장소: 하상관과 하상관 주변 구역(하상관 지하 및 체육관 포함)
-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하상관 출입이 금지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훈련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 병자영성체
- 일시 : 10월 6일(금)
- 신청 : 조영인 형제 (703)264-0050

7 성당 묘지 구입(20% 할인) 안내(연령회)
- 일시 : 10월 7일(토) 오전 11시
- 문의 : 홍의훈 요셉 (703)966-8206

8 제4기 성마리아 어머니 학교
- 주제 :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로서의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 대상 : 자녀를 둔 모든 어머니 (나이 관계 없음)
- 행사 일정 : 10월 28(토)-29일 (일) 1박 2일
- 참가 신청 : 10월 1일(일), 친교실, 선착순 40명
- 장소 : Trinitarians Retreat Center, Baltimore, MD
- 문의 : 최아델라 (703)470-1220, 김베로니카 (703)864-1236

9 알링턴 교구 청소년 신앙 대회
- 일시 : 10월 22일(일) 오후 12시 – 8시
- 대상 : CYO (9 – 12학년)
- 접수 기간 : 9월 24일 – 10월 15일
- 문의 : CYO 교사 또는 이희존 아오스딩 (703) 627-0799

10 단체장 회의
- 일시 : 10월 8일(일) 오전 11:30 (B-1,2)

11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10월 8일(일) 오후 1시 (B-3,4)

12 성물부 세일 안내
- 묵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20% 정기세일을 합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 Lectio Divina(렉시오 디비나)와 함께 하는 성서공부
- 주님의 말씀을 생활 안에서 묵상과 기도로 함께 하는 성서공부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 화요일, 수요일(저녁 7:30 – 9시) -신약(루카 복음)
- 목요일(오전 10:30) -구약(창세기) (목요일 성서공부 장소와 요일은 조정 가능)
- 장소 : 성가정 작은 자매회 13529 Margruder Farm Ct. Potomac, MD 20854
- 문의 : 양 그레이스 수녀 (301)236-4009, Email : Ishfgrace@yahoo.com

14 10시 성가대 단원 모집
- 10시 성가대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성가에 관심있는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 : 10시 미사 후 성당로비
- 문의 : 김윤식 블라시오 (214)592-6369

15 세계 제25차 기도와 금식 주간 (10월 1일 – 10월 9일)
- 개인과 세계 모든 국가들의 회개, 결혼과 가정생활의 성화, 생명존중 문화를 일깨우고자 주님의 자비를 청하며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 10월 9일(월) 마지막 날 : 기도의 날 행사 진행 / Joseph Perry 주교님(시카고대교구) 미사 및 강론, 연설
- 장소 : National Shrine (D.C) 오전 9시 – 오후 4:30
- 문의 : (888) 478-PRAY, (703)707-0799 / www.ivopf.org

16 Catholic College Fair
- K of C 주최 노던 버지니아 단체에서 가톨릭 대학에 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0월 11일(수) 오후 7시
- 장소 : Holy Spirit School, Annandale
- 문의 : 허진 (703)376-1372

✻ 가족 모두를 위한 순례 체험 ✻

알링턴 교구 마이클 버빗지 주교님께서 가족 모두를 위한 순례 체험에 신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 10월 14일(토) 오전 9시-오후 3시
- 장소 : National Shrine (D.C)
- 본당에서는 신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버스(점심 포함)를 제공합니다.(선착순 50명)
- 등록 : 10월 1일(일)까지, 8시,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 김 마리나 (703)615-9910, 사무실 (703)968-3010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0월 1일(일)	연중 제26주일	구역봉사자교육(오전 11:30, B-1,2), 주일학교 소방훈련(오전 11:10), 성모회(오후 1시, B-1), 청소년 사목회(오후 1시, B-3,4), 어머니학교 봉사자교육(오후 12시, A-1,2), CLC동중부 모임 (오후 1:30, 친교실), M.E.나눔터 사용(오전 11시), 성서통독반(오전 11:50)
2일(월)	수호천사 기념일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3일(화)	연중 제26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하상관), 성서통독반(오후 8시, B-4), 성령기도회(오후 8시)
4일(수)	한가위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친교실), 추석 합동 위령미사(오후 8시, 성당), 성서통독반(오후 7:30, A-1)
5일(목)	연중 제26주간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6일(금)	연중 제26주간	병자영성체, 하상 성인학교(오전 9시, 하상관), 저녁미사(오후 7:30, 성당), 회장단 회의(오후 8시)
7일(토)	묵주 기도의 동정 마리아 기념일	아침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친교실), 혼배성사(오후 4시)
8일(일)	연중 제27주일	단체부 모임(오전 11:30, B-3,4), 주일학교 없음,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성서통독반(오전 11:50)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 (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이번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성경필사는 "2017 성경필사 주일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 **연중 제26주간 : 신명 4-10장/ 마르코 13장**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10월 5일(목) 오후 5:00-6:00
10월 6일(금) 오후 8:00-9:00
10월 8일(일) 오전 6:00-7:00

- **성 정 바오로 성당 창립 31주년 특집:** '음악의 밤'을 비롯하여 뛰기·걷기대회, 성경 퀴즈 대회 등 행사 이모 저모를 돌아본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9월 24일 (연중 제25주일)

주일헌금	$ 7,600.00
교무금	$ 9,967.60
교무금(크레딧카드)	$ 5,560.00
특별헌금	$ 620.00
2차 헌금	$ 5,329.00
합계	**$ 29,076.6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종분(루시아),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박제종(요셉), 송영하(요한),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김영식(베드로),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냐시오), 안순겸(모니카), 이수선, 김화순(세실리아)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또), 손범기(펠릭스), 윤벅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쉘(미카엘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혼인공시
◈ 정승균 씨 자 : **정정오(비오)**
◈ 이정오 씨 녀 : **이보배(아델라)**
- 일시 : 2017년 10월 7일(토) 오후 4시
- 장소 :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집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RE/MAX Gateway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또)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맛사지과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암)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덱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영훈 (마르코) 센터빌,챈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메디케어** 홍석철 마태오 703-969-8956 박인경 소피아 703-969-8954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피나) 703-992-7930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시몽사진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SBA 대출/상업 대출** Bank of Hope Jessie kim 571-488-500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피아노 레슨** 아동 – 성인반 원하는 장르 가능 703-505-8559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 은퇴 계획, 건강, 메디케어 자동차, 주택, 사업체 703-649-2110	**공인회계사(CPA)** 개인세금, 비즈니스 회계, 컨설팅 앤디 차 (대건 안드레아) 703-678-8848	**Kwon's Champion School** 종합무술 (Before /After/Evening) 703-785-384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봄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